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학대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히 하계 올림픽은 세계 각국 수천 명의 선수들과 지구촌이 하나 되는 빅 이벤트이자, 가장 규모가 크고 인기 있는 국제 행사 중 하나이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하계올림픽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고, 나라 사랑의 애국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림픽은 지구촌 전 세계인의 축제임이 틀림없다.

지난 8월 11일에 막을 내린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은 100년이라는 숫자를 비롯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라는 여러 수식어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현상이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실내 경기장이 아니라 사방이 탁 트인 야외 스타디움에서 60만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막식이 치러졌다. 160여 척의 보트에 올라탄 6000~7000명의 선수단은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역사적 명소와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장장 6km를 지나는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러한 개막식은 전 세계인

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함이었고, 이를 통해서 파리라는 도시를 맘껏 자랑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새로 지어진 경기장은 수영 경기가 펼쳐진 '아쿠아틱 센터'가 유일했고 상젤리제 거리를 비롯해 그랑 팔레, 콩코드 광장, 베르사유 궁전 등 시내 곳곳을 임시 경기장으로 활용한 것은 파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본디 올림픽은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전에 군림하면서 천공(天穹)을 주재하는 제우스(Zeus)신에게 바치는 제전이였다. 올림픽은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고대 올림픽은 그 자체가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성격이 훨씬 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존중하고자 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성화가 제우스 신전에서 채화되고, 대회 때마다 그리스 팀이 가장 먼저 입장하는 이유도 올림피아 제전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올림픽에 있어 서로에게 이기고 지는 승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가 먼저인 것이다. 국가나 선수 간의 과열된 경쟁이나 우승절대주의라는 병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이데올로기, 자분에 잠식되어가는 현재의 몇몇 모습들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인간 자존을 흔드는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라 아프리카 차드 국적의 '마다에'가 양궁 남자 단식 64

강전에서 1점을 쏘면서 화제가 되었다. 열악한 환경에 가슴 보호대도 없이 36세의 나이에 올림픽에 첫 출전한 '마다에'는 김우진에게 완패했지만 "김우진과 대결한 것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올림픽에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제 성과가 자랑스럽다"라고 인터뷰한 모습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프랑스 남자 사브르의 간판인 '파트리스'가 독일의 '마티아스 사보'에게 밀려 올림픽 8강행이 좌절됐지만, 그는 '사보'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축하를 전했다. 이후 인터뷰에 "올림픽 정신은 워낙 큰 가치라서 그걸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구현할 수도 없다"며 "그건 단순히 경기나 스포츠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관계, 우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워딩(wording)일 것이다.

우리는 4년의 결실을 얻기 위해 몇 먹던 힘까지 투혼을 불사른 많은 선수들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1등도 2등도 없다. 4등, 5등도 모두가 최고의 선수들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들이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의 정신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스포츠라는 순수한 열정을 향한 선수들의 도전과 헌신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34회 하계올림픽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社說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연내 매듭지어야

정치권 등 이전논의 가시화

지지부진한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논의가 제기될 지 관심사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추석 전 만남에 긍정의 뜻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시장·도지사·무안군수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우선 김 지사의 '추석 전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2차 3자 회동 제안'에 대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김 지사가 제안한 '군공항 예비후보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올해 연말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설득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강 시장은 김산 무안군수의 민주당 복당과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설득 움직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위원장이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광주지역 경제계·시민단체, 공항이 있는 서구와 광산구도 무안지

역 설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강 시장은 광주시 중심의 설득 움직임이 국회·경제계·사회단체·자치구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가 최근 복당한 뒤 양 위원장이 박지원 의원 등과 간담회 등의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체할 사안이 아니다. 부산 가덕도 공항은 이미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고, 대구·경북신공항은 국내 첫 민간·군공항 통합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전북 새만금공항까지 논의가 활발하다. '골든타임'에 직면한 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뿐이다.

거듭되는 반대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은 커녕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라는 기능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추가 회동에 나설 계획이고, 김산 군수를 설득하기 위해 정치권까지 팔을 걷었다. 어느 때보다 무안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민의 바람을 담아 올해 꼭 이전을 매듭짓길 바란다.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 더 이상 회피 안돼

도민 생명 위해 결단 내려야

민주당 소속 순천 시·도의원들이 순천대의 전남도 의대 공모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김문수 국회의원의 참여 촉구에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번째다.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 의료격차는 한번 벌어지면 따라잡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교육책이다.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학 간 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지역 간 상생과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에 국립의대가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남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도 소지역주의에 따른 대립과 분열은 지역발전에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야 할 당

위성은 차고 넘친다. 전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에 2개, 충북에 2개, 강원도에 4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농촌과 도서,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에서마저 철저히 소외돼 있다. 전남 지역 1시간 내 응급실 이용률도 51.7%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과 중증외상환자 전원율 또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실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전남도의 공모 추진에 힘을 실고 있다.

30여 년만에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소지역주의에 따른 정치적 이익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지역과 지역민 모두를 위한 순천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가장 큰 가치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지역민의 의대신설을 바라는 것도 특정 지역을 위한 의대가 아니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북상 중인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 앞바다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 소형급 태풍으로 이날 오후 5시께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자정 무렵 서해남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다. 뉴스시

서석대

한국의 더위는 어느 수준일까? 한국으로 유학 온 동남아 학생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끔찍하다"라는 유학생의 비유에 한반도의 여름 더위의 위력을 실감했다. 유학생은 "동남아는 비가 오거나 밤이면 그래도 선선한데 한국은 비가 오고 밤이면 '습식 사우나' 같다"고 부연했다.

여름이면 한반도의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오르면서 체감 더위의 기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한다. 기상청은 최근 폭염의 원인중 하나로 습도를 주목했다. 기후학계는 공기중 상대습도를 반영한 일명 '습구온도'가 최근 12년새 1도가량 올랐다고 한다. 온난화로 인한 최고기온 증가폭(0.75도)보다 1.4배 상승 추세다.

습구온도가 높으면 땀을 통해 열을 식히기 어려워 열사병 같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한다. 올여름 습한 폭염과 열대야로 지난 12일 기준 240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21명이 사망했다. 가축도 70만 마리가 폐사했다. 습구온도가 섭씨 35도, 습도 100%일 경우 땀을 증발하지 못해 6시간내 사망한다는 끔찍한 연구결과도 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습한 도시일수록 더위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최근 광프리카(광주+아프



리카)로 불리는 광주시가 대표적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2015~2024년 5~9월 일 최고체감온도(전국 66개지점, 8월 7일기준)는 광주가 29.5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런 날씨라면 광프리카를 넘어 '사우나 광주'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습한 더위는 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현재(1979~2014년)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

하고 도시 위주 부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이 인공그늘막 등 폭염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습한 폭염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를 막는 건 한계다.

더위가 살인적이다.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조천호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올여름이 가장 선선한 여름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닥칠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다. 올여름 맹위를 떨쳤던 열 스트레스가 이젠 '열 공포'로 다가올까 섬뜩하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